『친구（Friends）』 BTS

第12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

暗誦部門\_指定原稿　テーマ2.歌詞

(文字数-335)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에 잔뜩 밴 채 만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아이

난 달에서, 넌 별에서,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웬수, 나는 그저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

안녕, 나의 우주인! 우린 서로의 수수께끼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줘

영원히 계속 이곳에 내 곁에 함께 있어줘

네 작은 새끼손가락처럼

일곱 번의 여름과 추운 겨울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 편 한 편 영화

만두 사건은 코미디 영화, 하교 버스를 채운 속 얘기들

이젠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

한결같애, 그때의 우리들

“안녕 ○○, 오늘”

내 방의 드림캐쳐, 7년간의 역사!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네 모든 걸 알아,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 마, 고맙단 그 뻔한 말 보단

너와 나 내일은 정말 싸우지 않기로 해

너는 나의 영원한 단짝이니까!

＊“안녕 ○○, 오늘”

○○の中に、発表者ご自身のお友達の名前を入れて発表する

(例)花子　“안녕 하나코, 오늘”

『友達（フレンズ）』　　　BTS

【参考】原稿テーマ 2. 歌詞和訳(非公式)

一際きらきらしていたソウル

初めて見たもうひとつの世界

汗でひどく濡れたまま 出会った君は なんだか変わっている子だった

僕は月から、君は星から、僕らの会話は宿題のようだった

ある日は友達、ある日は敵、僕はただ君を深く知りたいんだ

やあ 僕の宇宙人！僕たちはお互いの不思議な存在

だからより一層特別なのかな

いつの日か この歓声がやんだときはここにいてよ

永遠にずっとこの場所にいるんだ

君の小さな小指のように

7度の夏と寒い冬より 長い間

たくさんの約束と思い出の数々より 長い間

僕たちの制服姿を思い出す

僕たちの思い出の一遍一遍が映画

餃子事件はコメディ-映画、スクールバスの中を満たしていた話たち

今じゃ一緒にドライブに行くんだ

ひたむきだった、あの頃の僕たち

「やあ、○○、今日さ」

僕の部屋で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7年間の歴史、だからより一層特別なのかな

君のすべてを知ってる、お互いに信じあわなきゃ

忘れるなよ、ありがとうなんてありふれた言葉よりさ

君と僕 明日は本当に喧嘩しないようにしよう

君は僕の永遠のソウルメイト

＊단짝：もっとも親しい友達、類語として절친, 베프も使われる